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배재한, 2025.11.)

프롤로그: ‘진짜 돈’의 개념을 알고 투자하라

금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치가 제로가 된 적 없는 “진짜 돈”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법정화폐는 시대와 정책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금은 수천 년간 인류가 신뢰해 온 궁극의 안전자산이었습니다 ¹.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로 금을 축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금은 종이돈과 달리 실물이 담보하는 “완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². 법정화폐는 정부의 신용에 의존하는 일종의 약속에 불과하지만, 금과 같은 실물자산은 전 세계가 가치를 인정하는 진짜 돈(**real money**)으로 통합니다 ³. 최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지만 그것도 특정 공동체에서만 통용되는 합의된 상징일 뿐, 금은 인류 전체가 오랜 역사에 걸쳐 신뢰해 온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³.

금은 사치품이 아닌 전략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불안 시 늘 금을 찾아왔고, 금은 언제나 최후의 안전판 노릇을 해왔습니다 ¹. 금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장신구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존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가치저장 수단입니다 ⁴. 즉, 금을 소유하는 것은 부를 지키는 전략적 행동이며, 종이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진가를 발휘하는 “진짜 돈”에 대비하는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⁵ ⁶.

1장.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금 투자의 시작

- 01 **금은 사치가 아닌 전략이다:** 금에 투자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경제 위기에도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안전자산으로 금 수요가 폭증하며 금값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⁷. 금은 전쟁, 금융위기 등 어떤 상황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궁극의 가치 저장 수단이므로, 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자산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¹. 금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신뢰해 온 실체 자산(**real asset**)으로, 화폐 가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³.
- 02 **실물 금 투자: 디테일이 중요하다:** 금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실물 금의 형태와 거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1온스 금이라도 코인, 바(bar), 장신구 등 형태에 따라 프리미엄과 유동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물 금은 금고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므로, 보관 비용과 도난 위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⁸. 한편 금 선물이나 ETF 같은 금 파생상품은 손에 될 수 있는 실물이 아니라 숫자로 거래되는 것이므로, 시장 유동성에는 유리하지만 위기 시엔 실물만큼의 심리적 안전판은 못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실물 금 vs. 금 선물의 차이**를 “방어와 공격”에 비유하여, 실물 금은 가치 방어에, 파생상품은 공격적 투기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 03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금:** 글로벌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위기에서 **금 가격은 오히려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BRICS 등 신흥국들이 금 보유량을 크게 늘리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⁹.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금이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부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통화질서에서 달러 패권이 흔들릴 조짐이 보일수록 **세계는 다시 금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⁹.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수년간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 속에서 금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금융시장 폭락기에도 금은 궁극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습니다 ¹.
- 04 **금값은 로또가 아니라 경제의 바로미터다:** 금값은 단순한 투기적 변동이 아니라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금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장기 금리 불안정,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이 금을 찾는 구조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¹⁰. 한편 금 공급은 지질학적·경제적 한계로 크게 늘리기 어려워 공급 정체 속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금값 상승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가치 변동, 중앙은행 매입 등 거시경제 지표들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¹⁰. 금값은 단순 운이나 로또가 아니라, 통화 가치와 시장 불안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05 **금은 상장폐지가 없는 자산이다:** 실물 금은 결코 파산하거나 상장폐지 될 일이 없는 자산입니다. 기업 주식이나 회사채는 발행 주체의 부도나 사업 실패로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있지만, 금 그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가치가 있는 원자재입니다**. 금은 영원히 존재하며 누구나 원하는 자산이므로, **시간이 지나도 0이 될 위험이 없**

습니다. 책에서는 이를 두고 “진짜 금”과 “가짜 돈”的 차이를 깨달으라고 강조합니다 – 금은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을 견딜 유일무이한 실물 돈인 반면, 법정화폐나 채권은 신용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 06 실물은 숫자보다 강하다: 차트를 보면 사고파는 종목으로서의 금이 아니라 손에 될 수 있는 실물 금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물 금은 전산상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산(계좌 속 금, ETF 등)보다 위기 대응력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전산장애나 금융시스템 마비 시에도 내 손에 있는 금덩이는 그대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책은 “금과 은은 차트를 보면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숫자상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투명한 유통 구조 안에서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강한 투자임을 역설합니다 ④. 즉, 가격에만 집착하지 말고 금의 유통 구조와 실물 인도 과정을 잘 이해하여 매수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 07 2030년까지 시스템이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 책은 향후 몇 년간 금 가격을 밀어올릴 시스템적 힘에 주목합니다 ⑪.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양적완화와 긴축의 반복), 달러체제의 균열(탈달러화 흐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대, 금 공급의 한계 등이 맞물려 2030년까지 금값 상승을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⑫. 실제로 연준(Fed)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금은 가장 주목받는 자산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⑬. 또한 각국의 통화 시스템 변화와 디지털 화폐 부상 속에서, 금이 기축통화 가치의 일부를 재흡수하며 전략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수급 구조의 변화(높아지는 수요 vs. 제한된 공급)가 시스템적으로 금값을 끌어올릴 것이라 전망입니다 ⑭.

2장.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안전자산 투자

- 01 구조적 변화가 금값을 끌어올린다: 금값 상승에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통화 정책의 변화와 달러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1971년 금본위제 폐지 이후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군림해왔지만, 최근 탈달러 움직임과 달러 신뢰 약화 조짐이 금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⑮. 동시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급증이 수요 측면의 큰 변화입니다 –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보유 다변화 전략으로 금 비중을 높이며, 일부 중앙은행은 보유량을 과거 대비 몇 배로 늘렸습니다 ⑯. 반면 금 신규 공급은 지하자원 한계와 환경 규제로 빠르게 늘기 어려워 공급 측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 체제의 균열, 중앙은행·민간의 폭발적인 금 수요 증가, 금 공급 제약 등이 맞물려 금값 상승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⑰. 전문가들도 “금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추세를 강조합니다 ⑱.
- 02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할수록 금은 더 강해진다: 가상자산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금의 가치에 흥미로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에 1:1로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인데, 달러 패권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⑲ ⑳. 이는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 속에서 디지털 형태의 달러를 찾는 수요가 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Gold-Backed Stablecoin)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㉑. PAX Gold(PAXG), 테더골드(XAUT)처럼 1토큰당 1온스의 실물 금으로 100% 담보된 코인들이 이미 등장했고, 블록체인 기술로 금본위제의 신뢰를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㉒. 책에서는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금본위제 복귀 실험”으로 소개하며, 탈달러화 시대에 이러한 시도가 금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㉓.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유동성 제약, 규제 리스크 등)도 있어, 금 기반 토큰이 만능은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실물 담보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능성은 크다고 평가합니다 ㉔ ㉕.
- 03 탈달러 시대, 세계는 다시 금으로 간다: 지정학적 충돌과 재재 위험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질서가 다극화(탈달러화)되는 흐름 속에 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러시아는 2022년 서방 제재로 달러 자산을 동결당한 후 금 비축을 크게 늘렸고,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도 무역 결제에서 달러 의존을 줄이고 금 및 다른 통화 활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㉖. BRICS 국가들은 새로운 공동결제 통화를 논의하며 달러 대안을 추구하는데, 이는 금의 귀환을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금은 국가 간 최후의 가치 척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달러냐, 금이냐?” 하는 질문이 단순한 자산 선택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통화패권 하에서 더 절실해지는 생존 전략임을 강조합니다 ㉗. 요컨대 탈달러 시대에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다시 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금값 상승과 직결될 것입니다.
- 04 금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생존 보험이다: 금은 위기 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존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거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 현금이나 채권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금은 가치를 보존하며 오히려 가격이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㉘. 그래서 과거부터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의 금을 편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삼았습니다. 금은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분산투자의 효과도 높입니다 ㉙. 책에서는 금을 “가장 느리지만 가장 강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한순간에 큰 수익을 주진 않아도 위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전체 부를 지켜주는 자산으

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주식·부동산 위주의 포트폴리오에도 생존 보험으로서 일정량의 금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 05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금 투자를 한다: 금 투자는 더 이상 큰 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소액으로도 금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KRX)의 금 현물시장에서는 1g 단위로 금을 거래할 수 있어, 작은 금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²³ KRX 금시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양도세도 없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매월 소액의 보관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²³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금 거래는 접근성을 높여주었지만, 책에서는 그 이면의 리스크도 짚고 있습니다. 예컨대 토큰화된 금은 편리하지만 해당 플랫폼의 신뢰성과 실물 담보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보다는, 검증된 기관을 통해 금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핵심은 소액이라도 정식 유통망에서 안전하게 금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며, 필요하면 계좌 금(골드뱅킹)이나 금펀드, 금 ETF 등을 활용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 06 금 ETF는 실물 없는 금 투자의 대안일까?: 금 ETF는 실물 금을 직접 사지 않고도 금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풍부해 인기 있는 수단이죠. 그러나 책은 ETF의 본질은 유동성이고 금의 본질은 실물임을 강조합니다.²⁴ 즉, ETF는 금가격에 대한 종이증서일 뿐 금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위기 시에는 실물 금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100% 해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ETF를 무조건 기피할 필요는 없지만, 단기 거래나 가격 차익을 노릴 때 유용한 수단으로 보고, 장기적인 안전자산 보유 목적이라면 실물 금을 병행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금 ETF에 투자할 때는 어떤 기관이 금을 보관하고 있는지, 구조가 투명한지 살펴야 하며, 필요시 실물로 인출 가능한 ETF인지도 점검하고 합니다. 결국 ETF는 금 투자 대용수단일 뿐 완벽한 대체는 아니므로, 두 방식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활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²⁴.
- 07 나이와 자산 규모에 따른 금 투자 전략: 금 투자 비중과 방법은 나이대나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책은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인 20대는 자산이 적으므로 소액으로 꾸준히 금을 모으는 전략이 좋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금 통장이나 금 소액구매로 적립해 나가면서 금 가격 흐름을 배우는 것이지요. 30~40대 중 산층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전체 자산의 5~10% 수준을 금과 은 실물로 보유하는 걸 권장합니다. 한창 자산을 불릴 시기지만,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에 대비해 금을 보험처럼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50대 이상 자산 축적기나 은퇴자는 안전자산 비중을 더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나 고액자산가는 금융시장 변동에 민감하므로, 금과 은을 20% 내외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두면 좋습니다(개인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 조절). 또한 은퇴자들은 금 실물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 금고 임대나 안전한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각자의 연령대와 자산 규모에 맞는 금 투자 목적과 비중을 설정하여,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금을 활용하는 전략을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금 투자 기초 원칙

- 01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금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나에게 맞는 실전 금 투자법을 찾아야 하며, 특히 싸다고 아무 금이나 덥석 사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골드바를 구매할 때도 공식 브랜드 제품인지, 순도 인증과 품질보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비인증 골드바나, 장식용 금제품을 투자용으로 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금은방마다 수수료나 프리미엄이 다르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홈쇼핑이나 백화점, 소매점에서 시세보다 비싼 금을 구매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대신 투명한 거래 구조를 갖춘 공식 금거래소나 중매 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에 금을 매수하라고 조언합니다.²⁵ 결국 처음 살 때 바르게 사야 나중에 팔 때 이익을 지킬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경로와 적정한 가격에 금을 매입하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금 투자 전문가들이 권하는 매수 팁으로는, 금리가 높아질 때 일시적 금가격 하락을 노려 분할매수하거나, 현물 시세와 선물 가격 역전 현상(백워데이션)이 있을 때 저가 매수하는 등이 있습니다.
- 02 싸게 사서 똑똑하게 보유하라: 금도 싸게 살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골드바 10돈(37.5g)을 50만 원 싸게 사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요지는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은행이나 금은방에서 금을 사면 시세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주지만, 공식 금 거래소나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하면 그 마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²⁵ 또한 개인 간 직거래(중매 거래)를 활용하면 부가세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상당히 저렴하게 금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²⁶ 이렇게 싸게 산 금은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합니다. 실물 금 투자는 복리 이자처럼 불어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 보유가 정석입니다. 다만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금 관련 세금(부가세, 양도세)과 보관비용, 그

리고 매도 시 유의사항까지 미리 제대로 알아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²⁷. 즉 “Buy and Hold” 전략이 금에도 통하지만, 제대로 알고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03 금은 어려운 투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는 복잡하고 전문가나 하는 것이라 오해하지만, 책은 “금 투자가 복잡하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금은 오히려 주식보다 가격 변동 폭이 적고 단순한 자산이어서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값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금리, 달러가치, 인플레이션 등) 몇 가지만 파악하면 뉴스를 통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지요. 또한 요즘은 금 투자가 더욱 간편해져서, 증권사 어플로 금 현물을 사고팔거나 은행의 골드뱅킹으로 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 장벽이 낮아졌으니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출발이라고 조언합니다 ²⁸. 금 투자는 길게 볼수록 성공 확률이 높기에, 너무 재지 말고 여유자금의 일부부터 소액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책은 **현명하게 금 투자하는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신뢰할 수 있는 채널 이용, 분할매수, 장기보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등을 강조합니다. 결국 금 투자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고, 오히려 단순함 속에서 꾸준함이 답인 투자임을 일깨웁니다.
- 04 같은 무게인데 왜 가격이 다를까?: 같은 24K 순금이라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래된 금품이라고 해서 금 함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고 금이라도 순도만 보장되면 금값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물 거래 현실에서는 **브랜드 가치와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없는 비(非)브랜드 골드바**는 재매도 시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싸게 처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²⁹. 왜냐하면 정식 인증된 한국조폐공사나 LS금속의 골드바에 비해, 비브랜드 제품은 순도 신뢰도나 시장 선호도가 떨어져 디스카운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산 골드바와 국산 골드바**도 가격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내산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아 매도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²⁹. 즉 같은 무게 금이라도 브랜드, 생산국, 제품 형태(주화 vs 바 vs 장신구)에 따라 매매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용으로는 표준화된 순금 골드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책에서는 “오래된 제품이라고 함량이 줄지 않는다”, “모든 금이 다 똑같다는 말은 거짓말” 등의 소제목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설명합니다 ²⁹ ³⁰.
- 05 부자들의 금 거래는 다르다: 고자산가들의 금 투자법은 일반인과 몇 가지 다를 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량 구매를 통한 가격 협상**입니다. 부자들은 한 번에 수 kg 이상의 골드바를 살 때도 많아, 거래소나 딜러와 가격협상을 하여 **프리미엄을 절감**합니다. 또한 정보력과 인맥을 활용해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저가 매입**하거나, 시중에 잘 안 풀리는 희귀 금화나 대형 골드바를 선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부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금 거래 파트너**(딜러나 거래소)를 찾아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합니다 ³¹. 이를 통해 매매 스프레드를 줄이고 안전하게 거래하지요. 책에서는 “부자들만 아는 금 싸게 사는 방법”을 소개하며, **정식 수입업체나 1급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면 중간 유통마진 없이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금 투자 파트너를 찾아 꾸준히 상담하고 거래하면, 시장 흐름 정보를 얻고 매도타이밍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³¹. 결국 일반 투자자도 이러한 원칙을 따라 검증된 채널과 파트너를 통해 금을 사고팔면 실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실전 금 투자 전략

- 01 금 투자는 타이밍과 심리의 게임이다: 금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타이밍을 읽는 안목과 조급해하지 않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사실 금 투자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크게 오르기 전에는 한동안 조용한 횡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값이 한창 오르고 나서야 뛰어드는데, 책은 “**금은 오르기 전에 조용할 때 미리 준비하는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³². 즉 시장이 관심 없을 때 꾸준히 모아두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챙길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투자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처럼, 금도 인내심 있게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³². 또 한 가지, 금은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불안해서 사고, 내리면 겁나서 파는 군중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금값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여유 있게 추가 매수하고, 과열일 때 차익 실현하거나 관망하는 역발상 전략이 유효합니다. 요컨대 금 투자 성공비결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묵묵히 매집하고, 내가 산 가격을 믿고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책은 조언합니다. 금 투자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며, 너무 조급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게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 02 지금 금값에 속지 말고 흐름을 읽어라: 눈앞의 금시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흐름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다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를 경계합니다. 책에서는 “조금 더 싸게 사려는 생각은 버려라”라고 조언하는데, 금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 **지나치게 가격을 재기보다 일단 투자 비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제 금값이 급등했다고 바로 국내 금값에 반영되진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³³. 국내 금 시세는 원/달러 환율과 국내 수급에 영향을 받아 약간의 시차나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시장에서 금이 온스당 \$50 뛰어도, 당일 국내에선 환율이나 부가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를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언론 헤드라인만 보고 성급히 매매하기보다, 국제 시세와 국내 시세의 연동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눈앞의 금값만 볼 게 아니라, 금리 추이, 달러 동향, 수급 흐름 등 거시적 흐름을 읽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금값 급등 뉴스에 속지 말고 흐름을 읽어라”는 챕터 제목 그대로,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 구조를 이해한 투자를 강조합니다.³³.

- 03 환율을 모르면 금 투자를 할 수 없다: 환율과 금값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금은 달러로 국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환율 상승) 국내 금값은 자동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³⁴. 예를 들어 국제 금시세가 변동 없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기준 금 가격(원/돈)은 상승합니다.³⁴. 실제로 최근에도 환율 급등 시기에 국내 순금 한돈 가격(부가세 포함)이 90만원을 기록한 적 있습니다.³⁴.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제 금값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상쇄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책은 “**환율과 금값이 함께 급등할 때 골드바 싸게 사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요점은 이럴 때 달러로 직접 금을 사거나(환전 수수료 절감), 환헤지를 통해 금을 사두는 전략입니다. 결국 환율 변동이 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환율을 모른 채 금에 뛰어들면 기대와 다른 수익률이 날 수 있으므로, **원화 가치 흐름을 항상 체크**하라고 강조합니다.
- 04 국내에서도 달러로 금을 살 수 있다: 책은 흥미롭게도 “**달러로 골드바 구매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³⁵. 만약 달러 현금이나 달러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이를 굳이 원화로 바꾸지 않고 곧바로 금을 살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부 금거래소나 한국조폐공사 매장에서는 달러 지폐로 금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 환전 수수료 없이 환율 우대를 받으며 금을 매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³⁵.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 사이트나 글로벌 금딜러를 통해 달러 결제로 금을 직구하는 것인데, 이 경우 운송 및 통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금과 달러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면 이런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환율이 급등해 원화 약세일 때는 국내 금값이 비싸지므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달러로 직접 금을 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달러로 거래할 때는 위폐 검증이나 한도 제한 등의 실무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이용하라고 당부합니다.
- 05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최근 경제 환경 변화를 보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며 금 투자 전략도 이에 맞춰 재편되고 있습니다. 먼저 각국의 금리정책 전환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책은 “금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장 기대되는 자산”이라고 강조하는데,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등 현금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대안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¹². 따라서 향후 금리가 피크를 찍고 인하 사이클로 돌아선다면 금값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현금 기반의 금 거래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는 언급은 요즘 금 거래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흐름을 뜻합니다.¹². 과거에는 금을 현금 주고 직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앱을 통한 금 거래가 대세가 되면서 현금 거래는 줄고 있습니다. 이는 금 유통의 투명성과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금상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책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복잡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는 금 투자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¹². 예컨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탈 달러화 등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경우 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므로, 금융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에 금을 포함하고 거래 방법도 최신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하라는 것입니다.

5장.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금 가격 읽기

- 01 금값은 유통 구조로 결정된다: 금 가격 형성의 이면에는 시장 유통 구조가 자리합니다. 책은 “금 투자의 본질은 시세 흐름과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라고 밝히며, 금값을 제대로 예측하고 활용하려면 금이 거래되는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³⁶. 국내 금 유통은 한국금거래소 같은 도매상→소매상→소비자 구조를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과 스프레드가 붙습니다. 따라서 국제 시세와 별도로 국내 시장가격은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³⁶. 예를 들어 금 도매상이 재고가 부족하면 국내 시세가 국제가 대비 높게 형성되고, 재고가 넘치면 낮게 형성되는 식입니다. 즉, 국제 금값이 같아도 국내 유통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거래 시스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유리한 가격에 금을 살 수 있습니다.³⁶. 책은 금 가격 흐름을 읽을 때 단순 차트분석보다, 공급망 동향, 수요층 움직임, 정부 정책(관세·부가세) 등을 함께 보라고 조언합니다.
- 02 금값은 실제 거래 현장에서 결정된다: 뉴스에서 보는 금 시세는 사실 실제 거래 현장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실거래가라는 것입니다.³⁷. 한국의 금값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한국거래소의 금 시장 가격, 한국금거래소 등의 유통가격, 그리고 동네 금은방 시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간혹 언론에 “금값 역대 최고” 기사가 나와도, 정작 개인이 금은방에 가서 금을 팔면 생각보다 낮은 값을 제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금값이 올랐다는데도 막상 팔 때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³⁷. 그것은 도매-소매 스프레드와 부가세, 수수료 때문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보통 도매 시세(순금 1돈의 도매가)인

데, 개인이 소매점에 팔 땐 **도매상이 취하는 마진과 부가세 등을 감안**해서 그보다 낮은 가격을 쳐주는 것이죠. 따라서 **명목 시세와 내가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며, 금을 팔 때는 여러 곳의 매입가를 비교하거나 공식 시세 기반의 거래소를 통해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금값은 **최종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거래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뉴스 숫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³⁷

- **03 제대로 알고 팔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금을 팔 때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동네 금은방에 가서 팔 경우 제값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책에서는 “금을 판매할 때 동네 금은방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짚으면서, 소규모 매장은 유통마진을 많이 떼거나 시세를 낮게 쳐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³⁸ 대신 **공식 금 거래소나 은행의 금 매입 창구 등 검증된 구조**를 통해 파는 것이 좋습니다.³⁸ 또 한 가지, 금도 팔 때 세금과 절차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손해를 줄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처럼, 금에는 1인당 연 2,500만원 까지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나눠 파는 식의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실물 기반의 거래 생태계** – 예를 들면 한국금거래소 중개 플랫폼 – 를 활용하면 중간 수수료를 줄이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³⁸ 금은 살 때뿐 아니라 팔 때도 여러 정보를 따져 최적의 방식을 택해야 하며, 특히 **큰 금액을 현금화할 때는 시간차를 두어 분할 매도하거나 전문 딜러와 협의 매각**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도 그냥 막팔면 손해이므로 “제대로 알고 팔아라”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시세보다 저평가받지 않고 정당한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04 순금 팔찌도 가치 투자다:** 금 투자라 해서 꼭 골드바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금으로 된 주얼리(예: 24K 순금 팔찌)**도 엄연히 금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순금 팔찌나 반지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현금화(유동화)할 수 있는 실물자산입니다.³⁹ 물론 주얼리를 살 때는 공임비(세공비)가 불가 때문에 **금값 외에 추가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금 시세가 상승하면 기본 금 함량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공비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투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순금 주얼리의 금값은 선택이지만 수공비는 전략”이라고 표현하며, **세공비를 최소화하면서 금 함량을 최대화하는 제품**을 고르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³⁹ 예컨대 과도하게 화려한 디자인보다 **금 중량이 충분하고 불필요한 보석 등이 없는 제품**이 좋겠지요. 다만 주얼리는 구입 시 부가세 면제 혜택이 없고, 재매각 시에도 구매처에 따라 감가상각이 있으니 **투자용 주얼리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적절하게만 고르면 **착용하면서 즐기다가 언제든 판매하여 가치 회수도 가능한, 일종의 즐거운 금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6장.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실물 금·은 보관법

- **01 자산의 가치는 보관에서 결정된다:** 금과 은 같은 실물자산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지켜집니다. 우선 골드바나 실버바를 집에 보관할 경우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가정용 금고를 갖추거나 은행 임대금고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실버바는 양도세가 없고 가격이 저렴해 대량으로 보유하기도 쉬운데, 문제는 부피가 크고 무겁다는 점입니다**. 또한 은은 공기 중에서 **변색(산화)**되기 쉬워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⁸ 책에서는 **실버바는 전문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합니다**⁸. 실제로 시중은행이나 민간 금고업체에서 대량의 은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습기와 공기 접촉을 차단하여 변색을 막고, 보험 적용으로 도난 위험도 커버됩니다.⁸ 금의 경우 녹이 슬진 않지만, 동일하게 도난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작은 골드바나 금화는 분실 위험도** 있으므로 케이스에 잘 보관하고 위치를 가족에게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금·은의 가치는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보관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 **02 저평가된 은(銀) 투자에 숨은 기회:** 금에 비해 **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실물자산**으로 꼽힙니다. 산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현재의 금·은 가격비(Ag/Au Ratio)를 보면 역사적 평균에 비해 은 가격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입니다. 책은 **은 투자에 숨은 기회**가 있다며, **실버바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합니다**. 실버바 1kg짜리는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금에 비해 저렴하여 소액 투자자도 접근하기 쉽고, 향후 은가격이 산업 수요로 상승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은 부피가 크고 보관이 까다로워서, **너무 많이 사두면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 대비 일부 비중만 편입해두되, **장기적으로 은의 가치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프리미엄 금화·은화에 투자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골드 이글, 실버 워크 등 각국의 법정금화·은화 중에는 수집가치가 붙는 프리미엄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금·은 내재가치 + 알파의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량이 적거나 역사성이 있는 주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 **취미 겸 투자로서 매력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 **03 실물자산의 족보를 확인하라:** **금·은 실물자산에도 족보(계보)**가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이는 곧 **제품의 순도와 인증,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99.9와 999.9는 미세한 차이가 아니다”라는 챕터에서,

순도 99.90%와 99.99%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⁴⁰. 999.9로 표시된 제품(일명 포나인)은 국제 최고 순도 표준으로 인정받아 시장 선호도가 높고 매매가 수월합니다. 반면 99.9(쓰리나인) 제품은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의 불순물 차이가 있고, 국내외 일부 바이어들은 포나인을 더 쳐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순도 99.99% 인증 제품**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또한 일련번호(serial number)가 새겨진 골드바/실버바는 추적과 인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⁴⁰. 일련번호는 단순한 각인이 아니라 그 제품의 고유 신분증과 같아서, 훗날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도난품 여부를 가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일련번호가 선명하고 관련 **인증서가 첨부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⁴⁰. 결국 금과 은을 살 때는 제품의 **족보(순도, 인증기관, 일련번호, 제조사 등)**를 꼼꼼히 파악하고 확실한 것만 사라는 것이 이 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 04 브랜드가 실물자산의 격을 만든다: 금도 브랜드 시대입니다. 책에서는 국내 유명 골드바 브랜드인 **LS골드바**를 예로 들며, 이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브랜드화된 자산**이라고 소개합니다 ⁴¹.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에서 생산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금은 **동일한 순금이라도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예컨데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스위스의 Pamp·Argor-Heraeus 골드바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환금성(유동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반면 이름 없는 민간 주물업체의 골드바는 정확한 순도나 무게 인증이 어렵고 시장 수요도 적어, 팔 때 할인이 붙을 수 있습니다 ²⁹. 또한 주물금(Cast Bar)보다 **정제된 민트바(Mint Bar)**나 코인 형태가 일반적으로 더 선호됩니다 – 모양과 마감이 깔끔하고 위·변조가 어려워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⁴¹. 책은 “골드바는 브랜드와 외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주물금보다 브랜드 골드바를 선택하라”고 조언하면서, 초기 구입 시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 주더라도 **검증된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이 결국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⁴¹. 왜냐하면 나중에 팔 때 더 좋은 조건에 판매할 수 있고, 가품에 대한 걱정도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물 금·은은 제조사와 브랜드에 따라 그 격(格)이 달라지므로, 평판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 05 정보와 브랜드가 진짜 가치를 만든다: 흔히 “금은 다 똑같다”라고들 하지만, 책은 단호하게 “모든 금이 다 똑같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합니다 ³⁰. 앞서 언급한 브랜드와 거래 방식, 유통 구조에 따라 **실제로 거래되는 금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³⁰. 예를 들어 같은 시세라도, 일반인이 금은방에서 살 때와 대형 거래소에서 살 때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살 때와 정보가 있는 사람이 살 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정보력이 곧 가격인 셈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춘 사람은 불필요한 프리미엄을 피하고 좋은 가격에 거래하지만, 모르면 “호갱”이 되기 쉽습니다 ³⁰. 책에서는 금을 살 때 호갱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간 시세 확인하기, 여러 판매처 견적 비교, 커뮤니티나 전문가 조언 활용 등을 제시합니다. 또한 **검증된 브랜드의 제품을 정당한 가격에 파는 곳**을 이용하면 실패 확률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금 투자는 **정보 싸움**이며, 미리 공부하고 남들의 경험담을 참고하여 **시장 구조와 브랜드 특성을 파악해두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7장.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금 매매 전략

- 01 중매 거래로 더 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팔자: 금 매매에 있어서 **거래 방식의 선택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책은 “금값 예측보다 거래 방식을 주목하라”고 조언하는데 ²⁶, 이는 금 시세를 남들보다 잘 맞추는 것보다 **어떻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구조를 이용할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해답으로 **중매 거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²⁶. 중매 거래란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금을 직거래하도록 돋는 서비스로, 일종의 **P2P 장터**입니다. 이 방식을 쓰면 금 도매상이나 소매상의 마진을 생략하고 **수수료만으로 거래할 수 있어, 구매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판매자는 시세보다 높게 파는 원원이 가능합니다** ²⁶. 실제로 골드나라 등의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시세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맞춰주어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책에서는 이를 활용하면 골드바를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²⁶. 다만 중매 거래를 할 때는 플랫폼의 신뢰성과 안전장치(에스크로 등)를 확인해야 하고, 직거래 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중매 거래에서 인기가 있어 더 좋은 값을 받으므로, 앞서 말한 대로 좋은 제품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²⁶. 결국 금 매매 전략의 핵심은 **시세를 눈여겨보면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외에도 세금 절약 전략(증여를 활용한 세대 분산 보유 등)이나 레버리지 활용 주의점 등 실전 팁이 추가로 소개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각도로 금 매매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실물 자산으로서의 금과 은에 대한 이 책의 조언은 한마디로 “원칙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로 요약됩니다. 금은 변동성 높은 시대에 생존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며 ⁴²,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통화 시스템, 유통 구조에 대한 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재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가 금투자를 통해 어떻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금과 은이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훔뚫는 실물자산임을 깨닫게 되며, 나아가 금융위기나 인플레이션 같은 복잡

한 상황에서도 훈들리지 않을 투자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11 . 요약하자면, 진짜 돈인 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접근법만 있다면 누구나 금 투자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참고자료: 배재한,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 진짜 돈 vs 가짜 돈 (경향BP, 2025) 1 24 외 주요 내용 인용.

1 2 3 4 5 6 9 34 알라딘 모바일 서재 - 책과 통하는 블로그

<http://blog2.aladin.co.kr/m/702263178/16896543>

7 [Weekly BOOK Review] 그대들은 왜 금을 찾는가 - 더스쿠프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00>

8 은값 폭등 전, 1kg 실버바 투자 미리 준비하기 - 팬다랭크

<https://pandarank.net/contents/68f4f17ee3081a90437a3e84>

10 금값 어디까지 오르나…정치·경제 불안에 투자심리 폭주 - 파이낸스투데이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830>

11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 도서관용품 포스서울

https://www.phoseoul.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804121

12 24 26 28 29 30 31 33 35 36 37 38 39 40 41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 배재한 | 경향비피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62905385>

13 2026년 연준 정책과 무관한 금값 상승의 구조적 배경

<https://seo.goover.ai/report/202511/go-public-report-ko-911a5e7b-870d-44c6-98a5-bd5bd2abae52-0-0.html>

14 15 16 17 18 19 20 21 2가지 달러 패권과 스테이블코인의 역학관계, 그리고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 이니셜케이

<https://initialk.net/money/%EC%8A%A4%ED%85%8C%EC%9D%B4%EB%B8%94%EC%BD%94%EC%9D%B8%EA%B3%BC-%EB%8B%AC%EB%9F%AC-%ED%8C%A8%EA%B6%8C/>

22 왜 어떤 사람들은 금에 투자하라고 추천하는 걸까? : r/AskEconomics

https://www.reddit.com/r/AskEconomics/comments/1cw0tvo/why_do_some_people_recommend_investing_in_gold/?tl=ko

23 The EconoMic Person ::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https://k50321.tistory.com/419429>

25 [보리보리/제이북스]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 진짜 돈 vs 가짜 돈-모바일 ...

<https://www.11st.co.kr/connect/Gateway.tmall?method=Xsite&prdNo=8811615551&tid=1001567172&srsltid=AfmBOopuhC4Oe6N9lb9ikzXV-poN2uVRwxuWT7GImwQyV5YPgKzkAvHR>

27 경향BP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모바일 11번가

<https://www.11st.co.kr/connect/Gateway.tmall?method=Xsite&prdNo=8854287236&tid=1001567172&srsltid=AfmBOopUivZyeHoDWR4cUNCJ5bfqczqBFoj28MIDahl4l0r9EKIZ4dJX>

32 [경향BP] 경향BP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모바일 11번가

https://www.11st.co.kr/connect/Gateway.tmall?method=Xsite&prdNo=8835284636&tid=1001567172&srsltid=AfmBOooq7SKbFh_FOfUsQ5vOTrNse4w8MQT75qscnzobyPc6dfgD54SI

42 [한나북]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진짜 돈 vs 가짜 돈

<https://hanabooksquare.co.kr/product/%ED%95%98%EB%82%98%EB%86%EA%94-%EA%B8%88-%ED%88%AC%EC%9E%90-%EC%A7%84%EC%A7%9C-%EB%8F%88-vs-%EA%B0%80%EC%A7%9C-%EB%8F%88/271210>